

70인 제자 남은 자들의 기준, 수준, 표준 -복음으로 여는 디모데전서-

창세기 41:38-39, 디모데전서 6:11-12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237나라 살릴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응답과 해답이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복음화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중 10가지 비밀이다. 독립,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 무경쟁, 재창조, 서밋, 노바디 현장, 절대이다.

① 독립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떤 누구도, 사람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기도, 예배, 말씀이다. 거기서 내가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독립되어지는 것이다. 친구가 재밌게 놀아주면 행복하고, 남편, 부인, 애인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지옥되고 행복하면 독립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신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 노예생활, 광야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리시고 마귀도 때린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믿음은 시간이 필요없고 시공간을 초월한다. 오늘 깨달으면 오늘부터 응답받기 시작한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면 오늘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무시하고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복음화를 도울 수 있을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도울까?’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다.

② 사실이다. 현실의 문제를 보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실을 보는 것이다.

③ 역발상은, 문제가 클수록 큰 응답이 그 뒤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다 양보, 포기할 수 있다.

④ 시너지이다.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된다.

⑤ 위기이다. 위기 속에는 반드시 응답과 해답, 기회가 있다.

⑥ 무경쟁, 경쟁할 필요가 없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한다.

⑦ 그러기 위해서는 재창조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우고 투쟁하고 안 뺏기려고 아웅다웅할 필요 없다. 뺏기면 가져가라고 하고 쫓겨나면 가지라고 하면 된다. 더 큰 응답이 있다. 항상 새롭게 재창조하고, 많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재창조의 생각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성령충만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재창조의 응답을 주신다.

⑧ 영적인 서밋이 되는 방법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일을 잘해내지 못하고서는 큰 기업을 이끌 수 없다. 밑바닥에서 행복할 수 있고, 그 일을 잘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는 그 인턴십을 해서 사회에 내보내야 한다.

⑨ 노바디의 현장은 다 죽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생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가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정복할 수 있다.

⑩ 절대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여러분에게 위탁해주시다.

창세기에 보면 남은 자 램넛 출신인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요셉은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인정할 만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미리 보냈음을 안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요셉은 70인 제자, 남은 자로 쓰임받았고 결국 237나라, 5천 증족을 살리는 응답까지 받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들어야 한다. 왜 복음으로 결론나야 하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이 막고 있는 것이다. 중간사역자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남은 자는 디모데이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의 내용 대부분은 70인 제자인 남은 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절대기준을 알려준 실천리스트로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70인 제자인 남은 자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램넛들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리고 70현장을 살리는 남은 자 70인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1. 첫 번째에서는 남은 자 70인 제자들의 ‘절대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절대기준’이란 주로 복음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1장 3절에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70인 제자들은 현장과 지교회, 다락방에서 오직복음, 오직예수만 증거해야 하겠다.

(2) 1장 4절을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기준이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유대인의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주의’는 그것 외에는 다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복음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와 율법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율법을 지키다가 넘어지면 우리는 다윗처럼 진실하게 회개하면 된다. 그리스도이름으로 회개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원죄, 자범죄, 모르고 지은 죄가 해결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3) 1장 15절에서는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 1장 19절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 또한 남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당연한 기준이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4)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영적서밋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경건의 비밀과 맛을 아는 사람이 70인 제자라고 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이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의 이르는 방법이 3오늘과 서밋타임과 깊은 기도이다. 8절이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비밀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5) 6장 12절에서도 남은 자들의 당연한 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보면 70인 제자의 기준은 마땅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야”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영생을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전도와 영접을 의미한다. 여러분의 부업은 직장생활이지만, 주업

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들이 남은 자, 전도제자의 절대기준이 되어야 한다.

2. 두 번째에서는 남은 자 70인들의 ‘절대수준’이다.

(1)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씀하고 있다. 70인 제자의 수준은 전도자와 목사님들이 보았을 때 참 아들과 딸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남은 자의 수준은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2) 다음으로 70인 제자인 남은 자들은 자신의 영적인 수준과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과 15절을 보겠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강단메시지가 안 들리면 마귀가 웃는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다. 다락방, 지교회에서 ‘성숙해졌네’ 느껴져야 한다. 이것이 70인 제자, 남은 자의 수준이고 모습이다.

(3) 다음으로 6장 8절에 보면 70인 제자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70인 제자들은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70인 제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그리고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현장을 살릴 70인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의 말씀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절대 목표가 이것이다. 안 되는 부분은 회개하고 거듭나고, 다시 성장해가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가 필요한 것이다.

3.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는 남은 자 70인들이 지켜야 할 ‘절대적인 표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절대적인 표준이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삶의 표준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의 표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표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전도캠프의 인생이 될 수 없다.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개인, 가정, 사회도 법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

(1) 1장 5절에서는 남은 자 70인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마음자세에 대한 표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청결한 마음과 양심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나 인생캠프가 될 수 없다.

(2)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목사)들이 알아야 할 표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목회자는 항상 돌이켜봐야 한다. 무엇을 했을 때,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취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3) 바로 이어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의 중직자들인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알아야 할 표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권사)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전도캠프의 믿음이 생기겠는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해나가야 한다. 그래야지 사람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4) 젊은 교역자들에 대한 표준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내용은 4장 12절에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다. 젊은 교역자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5)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5장 1절에서 22절에서는 교회의 질서와 규칙에 대한 표준을 설정해 주고 있다. 70인 제자와 남은 자들은 누구보다도 교회의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며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말씀 드리기로 하겠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인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음으로 70인 제자, 남은 자들은 선한 사업도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6장 18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러한 말씀들은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하면 구제사업, 복지사업, 교육사업과 국제 NGO사업, 예체능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교회와 남은 자 70인 제자들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전체를 우리는 참사랑 RUTC, 237센터 안에서 지속해야 하겠다.

결론으로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의 언약은 내 자신이 먼저 디모데처럼 300, 30, 3지교회와 70현장을 살리는 남은 자로 쓰임 받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평생비전은 237나라, 5천 종족 중에서 70인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70현장에서 디모데와 같은 남은 자를 찾기 위해 24시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도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로 행복한 영적상태이다. 이것이 먼저 되면 나머지 문들이 열리게 되어있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문체와 사건 앞에서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이번 주에는 70인 제자로서 내가 버리고 찾아야 할 실천리스트는 무엇인지 기록해 보기를 바란다. 기록하고 생각만 해도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 시스템을 셋팅하기 위해 남은 자 70인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0가지 비밀과, 남은 자 70인 제자들의 기준, 수준, 표준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 이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현장을 살리는 70인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3천 제자의 응답을 하루 속히 누리고, 그리하여 전 세계 일천만 제자를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